안정서 도약으로…'불교중흥' 완성 이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 주요 종책 공약은

- 승려 완전복지 · 기본수행비 추진
- 문화사업 · 기부 확대로 재원 확보
- 중앙 권한 이양해 교구 자치 강화
- 선명상, 국민 마음운동으로 확산
- AI · 뉴미디어 활용 청년전법 확대
- 선거제도 개선 · 비구니 위상 강화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이끌 차기 집행부의 종책 방향은 제37대 집행부에서 추진한 변화를 제도화하고, 이를 수행·전법·교구 운영 전반으로 확장하는 데 맞춰져 있다.

진우 스님이 제시한 종책 공약 기조는 '공의·공감·공심'이다. 제37대 집행부가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과 선명상 보급, 불교박람회·템플스테이·'나는 절로' 등을 통해 종단 안정과 불교문화 확산에 주력했다면, 제38대 집행부는 이 같은 성과를 지속 가능한 제도와 조직으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진우 스님이 첫 번째로 제시한 공약은 교구 중심의 종단 운영이다. 진우 스님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이 주도하고 교구가 따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구와 함께 생각하고 결정하며 실천하는 종단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의 권한을 교구에 이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포교·문화·사회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총무원은 정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 사찰의 수행·포교·불사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교구본사와 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교구본사주지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우수 종무원을 교구본사에 파견하는 순환근무제도 추진한다. 중앙분담금은 점진적으로 감면해 교구가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조성한다.

교구와 사찰의 특성에 따른 '특화도량' 지정도 추진된다. 불교문화 전승에 강점이 있는 사찰은 전승 중심 도량으로, 청년 포교 기반을 갖춘 사찰은 청년불교 상징 도량으로 육성하는 방식이다. 각 교구가 보유한 인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성과를 종단 전체로 확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승려복지 강화를 위한 공약도 눈길을 끈다. 진우 스님은 출가에서 열반까지 교육·주거·의료·요양을 종단이 책임지는 '승려완전복지'를 추진하고 전 종도를 대상으로 '기본수행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수행자가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과 교육, 포교와 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본수행비의 지속적인 지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불교 전통문화 굿즈의 생산·유통·판매, 불교 콘텐츠의 유료화, 유휴자원 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진우 스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종단 재정 안정과 승려복지 확대로 연결해 수행과 전법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제38대 집행부에서는 기본수행비의 지급 범위와 방식뿐 아니라 불교문화사업을 통한 재원 조성체계를 구체화하는 일이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제37대 집행부의 대표 종책인 선명상은 '국민 마음운동'으로 확대된다. 현대사회에서 불안과 스트레스 등 마음의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명상을 통해 현대인의 마음을 돌보고 불교의 수행 전통이 가진 정신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전통선을 기반으로 한 선명상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인다는 게 진우 스님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담선대법회를 정례화하고 중앙선명상센터를 설치해 선명상의 효과와 보급 방법을 연구한다. 간화선 참선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지도법사와 지도자를 양성해 지역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인력 기반도 마련한다. 국내외 명상 전문가와 세계 석학이 참여하는 국제선명상컨퍼런스를 개최해 한국 선명상을 'K-선명상'과 'K-마음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청년전법은 선명상과 불교문화,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청년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나는 절로'와 '청년밥心' 등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청년층이 직접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회성 행사 참여를 지속적인 신행으로 연결한다. 지역별 군포교 지원사찰을 지정해 교구와 군부대 간 전법 기반도 강화한다.

AI와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법체계도 구축한다. 청년 전법 인재를 양성하고 AI·뉴미디어 포교를 담당할 전담기구를 설치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불교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한다. AI는 교리 분석과 번역, 행정 보조 등에서 적극 활용하되 기술이 인간 존중의 가치에 따라 사용되도록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불교문화는 전법과 재정 확충을 연결하는 기반으로 활용한다. 연등회를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육성하고 템플스테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불교박람회는 규모와 개최 지역을 확대하고, 불교문화의 보존과 산업화를 지원할 불교문화진흥 전승관 건립도 추진한다. 민간 국제교류를 통한 K-컬처 지원을 확대해 한국불교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사업도 병행한다.

선거제도와 승가교육의 정비도 제38대 집행부의 과제다.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여러 방안을 열어둔 채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구니 스님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종무행정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불교연구소 설립과 온라인 승려교육 플랫폼 구축도 주요한 공약이다.

대사회 활동에서는 일회성 지원 중심의 자비나눔을 자립형 자비나눔으로 전환하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확대한다. 전통사찰 경내지와 건축물의 종교 목적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국가유산 관람료 감면제도 보완, 재난 유형별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유산 유지·보수비 자부담 감면도 추진한다. 사찰림의 생태·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진우 스님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종단 운영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승가는 더욱 당당하게, 종단은 더욱 안정되게, 불교는 더욱 젊고 역동적으로 만들겠다."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끌 4년은 안정 속 도약을 위한 변화의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중흥을 위한 도약은 시작됐다.

주요 공약 영상 바로가기

진우 스님이 걸어온 길

종무행정 두루 경험 위기마다 종단 안정 이끌어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은 어린 나이에 출가해 종단 주요 소임을 두루 맡아 종단 안팎의 굵직한 현안에 안정적 해결을 이끌어왔다. 총무원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교육원장 등을 역임한 데 이어 제37대 총무원장을 지내며 종단의 안정적 운영과 불교의 대중화·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역동적인 한국불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관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출가 후에는 몽성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 정진하는 한편, 제18교구본사 백양사와 용흥사 주지를 맡아 전법·포교와 가람 수호에 매진했다. 현장 일선에서 지방과 중앙 종무행정의 가교역할에도 앞장섰다.

중앙종무기관에서도 주요 소임을 지냈다. 호계원 재심호계위원으로 활동하며 수행종풍 진작에 진력했으며, 총무원 총무부장과 기획실장을 역임하며 종단의 주요 현안 조율에 힘쏟았다. 2018년 전임 총무원장 불신임 사태로 종단이 혼란에 빠졌을 때는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과 화합을 도모했다. 2019년에는 제8대 교육원장에 취임해 승가교육 발전에 매진했다.

총무원 교육원장 · 총무부장 등 역임
2022년 37대 총무원장 무투표 당선
선명상 대중화 이끌며 '역동적 불교'

2022년 진우 스님은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처음 무투표 당선으로 제37대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총무원장 재임 기간에는 불교 대중화와 불교문화의 현대화, 종단 조직 정비, 전통사찰 권익 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대표적인 사업이 '선명상 대중화'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불교가 마음의 안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5초 명상' '우선 멈춤'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을 제시했다.

종단 조직을 정비하는 변화도 있었다. 2025년 4월에는 1994년 종단개혁 이후 30년 만에 총무원·포교원·교육원의 삼원 체제를 총무원 일원 체제로 통합했다.

불교중흥의 원력을 모으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사업을 비롯해 전통사찰 권익 회복을 위한 입법 성과도 이뤄냈다.

젊은 세대와 불교의 거리를 좁히는 문화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됐다. 불교박람회와 사찰음식대축제, 연등회 등 불교문화 행사에 새로운 감각을 더하면서 젊은 층의 관심을 끌어냈고, 이른바 '힙한 불교'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제 38대 총무원장으로서의 새로운 4년은 선명상의 국제적 확산을 비롯해 청년·미래세대 포교, 교구 자치 강화, 승려복지 완전 실현, 종단 재정 확보 등 지속가능한 종단의 기반을 다져야 할 때다. 진우 스님이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 한국불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갈지 관심을 모은다.

김내영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회 주 명 성
주 지 은 광
운문사 사부대중 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